

對오스트리아 타이어 수출 급증

오스트리아 상공회의소와 타이어 전문가협회에 따르면 '96년도 오스트리아 자동차 타이어 시장의 판매규모는 전년에 비해 물량기준으로 4%가 증가한 반면, 금액기준으로는 3%가 감소했다. 그런데 여름용 일반타이어는 각각 7%, 8%가 감소한 반면 스노우타이어는 각각 8%, 4%가 증가해 겨울용 스노우타이어의 수요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스트리아 자동차 판매상들에 따르면 생명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자동차 타이어의 특성상 소비자들은 구입시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브랜드의 인지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타이어는 검은색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최근 일부의 자동차 타이어 메이커는 다른 색상의 제품을 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96년도 타이어 수입규모는 물량기준 약 675만개, 금액기준 3억 4,752만달러로 전년대비 5%, 6%의 감소치를 기록했다. 총 수입물량중에서 승용차용이 70%, 버스 및 화물차용이 30%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독일·프랑스·슬로베니아산이 오스트리아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유럽 생산기지가 저임금국가인 동유럽으로 이전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오스트리아의 타이어 수입시장의 규모가 다소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물량 및 금액기준으로 각각 3%, 1%의 증가를 보이면서 시장점유율이 약간 올라갔다. 또한 '97년 1~6월 한국산 수입규모는 물량면에서 약 26만개, 금액면에서 약 834만달러를 기록, 전년대비 29%, 20%의 괄목할만한 성장으로 '96

● 수입실적

(단위 : US \$ 천)

국 별	1995	1996	97. 1~6
독 일	140,310	149,948	71,116
프 랑 스	51,799	51,879	15,688
슬로베니아	34,458	33,096	8,789
이탈리아	32,015	28,097	9,118
영 국	27,070	21,543	10,072
네덜란드	12,122	12,543	5,075
스 페 인	7,502	8,183	2,982
일 본	10,436	7,986	5,866
한 국	6,899	6,965	8,344
총 계	368,947	347,518	151,759

자료 : 오스트리아 중앙통계청, 무역연감.

※ S1=US \$ 10.08(95), 10.59(96), 11.81(97. 1~6).

년도 9위에서 '97년 1~6월에 6위로 올랐다.

타이어의 수입에 대한 EU 공통관세율은 5%로서 이 세율은 주로 선진국산에 적용된다. 개도국산에 대해선 3.5%, 저개발국산에 대해서는 무관세가 각각 적용되고 있다. 개도국산 중에서 말레이시아산과 태국산에 대해서는 4.2%가 적용되며 한국산은 관세혜택에서 제외돼 EU공통관세율인 5%의 적용을 받는다. 타이어의 수입을 제한하는 별도의 제도는 없다.

오스트리아 타이어시장에는 Semperit, Michelin, Goodyear, Dunlop, Pirelli, Yokohama, Vredestein, Bridgestone, Firestone, Kumho, Hankook 등 다수 브랜드가 진출해 있는 상태로 경쟁이 치열한 편이다.

오스트리아 자동차관련 전문정보지인 A & W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시장에서 타이어는 약 3분의 2가 전문상과 자동차 서비스체인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 그 외의 자동차 판매상을 통한 거래는 약 20%로 추산되며, 나머지는 주유소와 할인판매점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Semperit사의 경우 오스트리아에서 타이어 전문판매상중 가장 큰 Profi Reifen사를 보유하고 있어 마케팅에서도 그만큼 유리한 위치에 있다. 55개의 판매체인을 가지고 있는 Profi

Reifen사의 매출액 규모는 부품 및 서비스를 포함해 '96년도에 10억달러 이상을 기록했다. 그외에도 Semperit사는 유력한 타이어 도매상 등에 직접 공급하고 있으며 대형 유통체인인 PS-Markt를 거래파트너로 갖고 있어 두터운 아성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시장연구소인 Marketline International사에 따르면 향후 EU 역내국가의 타이어 판매유통구조의 변화가 올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이 회사에 따르면 영국 및 독일시장에선 타이어 교환을 포함해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센터를 통한 타이어의 판매가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EU 역내국가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마케팅상 역할의 중요성도 계속 증대될 전망이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서비스 수리센터를 통한 판매량이 현재 265만개에서 2001년에는 330만개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오스트리아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한국산 타이어의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산은 품질대비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시장점유율이 확대되고 있으며 또한 수입상들로부터도 좋은 호응을 얻고 있어 시장전망이 밝은 편이다.

수입상 Alpine Reifen사 Tennant 사장에 따르면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산 타이어의 경우 일반차량용 외에 농업용과 포크레인과 같은 특수차량용 타이어 부문시장에도 진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오스트리아 타이어시장은 넓은 판매망을 확보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Semperit사와 신제품 개발과 유통망 확보경쟁을 벌이고 있는 기타 제품과의 각축전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시장상황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선 판매유통체계의 변화를 고려한 마케팅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타이어 판매시장에서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

하는 서비스 수리센터의 역할이 그만큼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 마련과 신제품 개발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련산업인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충분히 고려한 생산전략으로 수급의 원활한 조정이 필요하며, 인지도 확충전략으로는 Formel 1 등과 같은 세계 자동차 경주대회의 스폰서를 맡는 방안과 E & W와 같은 오스트리아 자동차 전문정보지 등 광고매개체를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요망된다.

(KOTRA 海外市場, 1997. 12. 26)

페루 타이어시장 래디알 제품 확대추세

'96년 페루의 타이어 시장규모는 총 1억5천만달러, 약 144만개로 추정되고 있으며 '97년 수요도 '96년과 비교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직까지도 페루에서 가장 많이 수요되고 있는 타이어는 바이어스 타이어이다. 그러나 바이어스 타이어의 수요는 점차 줄어드는 대신에 래디알 타이어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바이어스 타이어의 경우 제품용도별 시장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승용차용은 전체에서 55%, 픽업트럭 및 미니버스의 경우 85%, 버스는 70%, 그리고 트럭은 90%에 있다. 승용차의 경우, 가장 많은 수요규격은 립사이즈 13, 14 및 15인치이며, 트럭 및 버스의 경우에는 주로 1100×20(버스), 1200×20(트럭) 사이즈의 타이어이다.

한편, 페루는 신생타이어 뿐만아니라 중고타이어의 시장비중도 높은 국가이나 현재는 한시적으로 중고타이어가 수입금지된 상황이다.

'96년 한해동안 페루의 타이어 생산량은 총 77만6,432개를 기록했는데, 페루 국내 타이어 제조업체에 따르면 이러한 생산량은 전체 생산

● 수입실적 (단위 : US \$ 천, CIF)

국 별	1995	1996	97. 1~7
▶ 승용차용 고무제 공기타이어			
칠레	3,884	3,636	1,456
한국	2,048	3,252	2,502
일본	1,853	2,662	1,483
브라질	1,021	1,412	510
총계	11,931	13,065	7,852
▶ 버스·화물차용 고무제 공기타이어			
한국	4,878	6,597	4,129
일본	4,653	4,428	2,800
프랑스	1,709	1,703	1,519
브라질	3,444	1,277	1,893
미국	1,590	1,165	1,910
총계	121,797	21,768	15,453
▶ 오토바이용 고무제 공기타이어			
대만	1,322	947	628
인도	300	252	154
인도네시아	105	160	85
총계	2,260	1,777	1,186
▶ 자전거용 고무제 공기타이어			
중국	379	363	227
대만	472	297	135
인도	429	288	403
총계	1,339	1,074	899
▶ 기타 고무제 공기타이어			
일본	2,347	4,423	2,937
스페인	2,857	3,075	1,146
브라질	1,869	1,411	853
미국	1,464	1,179	566
한국	358	317	309
총계	10,384	13,299	7,033

설비의 85%가 가동된 것으로 보고 있다.

페루의 타이어 시장의 약 20%는 수입품으로 충당되고 있다. 현재 페루에는 약 20여개의 외국산 브랜드가 현지 에이전트 및 대리점을 통해 유통, 판매되고 있다. 최근에 들어 타이어 수입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주요 타이어 수입업체들이 '90년 시장개방이후 취해온 타이어의 수입확대에 의한 재고누적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Lima Caucho S.A. 및 Goodyear Del Peru S.A. 등 페루의 양대 타이어 생산업체도 바이어스 타이어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산의 경우 '97년 1~7월중 승용차용 타이어와 버스·화물차용 타이어 수입시장에서 모

두 1위를 기록하고 있어, 한국산 자동차의 진출확대와 함께 한국산 타이어의 수입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일부 한국산 브랜드의 경우는 페루산 타이어에 비해 10~15% 낮은 가격으로 판매돼 현지 타이어 생산업체로부터 제소를 당하기도 한 바 있는데, 현지 에이전트와의 긴밀한 대응으로 모두 무혐의 처리를 받았다.

페루는 타이어 수입시에 CIF 수입가액에 대해 12%의 수입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CIF 수입가액에다 12% 수입관세액을 합한 금액에 대해 18%의 일반판매세를 적용함으로써 총 32.16%의 수입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페루는 대외무역법령에 의거해 FOB 금액기준으로 5천달러 이상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페루정부와 검사대행계약을 맺고 있는 SGS, Bureau Veritas, Cotecna Inspection 등 3개의 국제 공인검사기관중 하나의 기관으로부터 수출지에서 선적전검사를 반드시 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페루의 타이어 제조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유리한 신용조건하에서 도매상에게 자사의 제품을 유통시키고 있다.

페루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유력한 현지업체를 독점 에이전트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에이전트 선정시에는 현지업체의 재정상황 및 전국적인 유통망체제 보유여부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페루의 타이어 소비자들에 따르면, 한국산 타이어는 페루가 도로상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적응할 수 있는 타이어의 품질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일부 에이전트는 한국공급업체와의 거래에 있어 오랫동안의 거래관계에도 불구하고 대금결제상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관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KOTRA 海外市場 1997. 12. 15)

덴마크 자전거 타이어·튜브 전량수입

덴마크에는 자전거 튜브 제조업체가 없어 국내 수요 전량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잘돼 있어 자전거의 천국으로 불리는 덴마크내에는 연간 41만대 가량의 자전거가 판매되고 있으며, 자전거용품의 수요도 상당한 편으로 자전거 타이어의 경우 연간 120만개, 자전거 튜브는 150만개 정도가 판매되고 있다.

지난 '95년 총 196만개의 자전거용 타이어·튜브가 수입돼 '94년 대비 18.1% 증가를 나타냈으며 '96년에는 총 146만개의 타이어와 튜브가 수입됐다.

연도별 수입금액을 비교해 보면 '94년 총 D.Kr. 3,333만 7천, '95년 D.Kr. 3,915만 7천,

● 수입실적(HS 4011.50.10, 4011.50.90)

(단위 : D.Kr. 천)

국 별	1994	1995	1996
프랑스	2,791	3,433	2,404
화란	483	207	-
이탈리아	568	1,638	601
핀란드	1,744	1,208	386
폴란드	210	380	-
태국	2,531	2,835	3,656
인도네시아	629	1,546	1,319
중국	1,569	2,400	1,266
한국	3,190	4,190	2,068
일본	11,783	13,336	11,148
대만	6,578	5,610	5,312
독일	-	483	416
총계	33,337	39,157	30,460

주 : US \$ 1 = D.Kr. 6.3523('94년), 5.6053('95년), 5.7959('96년)

자료 : 덴마크 통계국

'96년 D.Kr. 3,046만이 수입됐다.

한국은 지난 '95년 36만 5,300개를 수출해 '94년 대비 63%의 수출증가를 기록했으나 '96년 55%의 수출감소로 덴마크 전체 수입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7%로 매우 낮은 편이다.

덴마크 자전거용 타이어·튜브의 수입관세는 4.7%가 부과되며 GSP 특혜관세 예외품목으로 EU역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덴마크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는 25%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 자전거용 타이어와 튜브에 대한 쿼터(할당량)는 없다.

일본산의 경우 지난 수년간 덴마크 시장을 석권한 여세로 최다, 최고의 품질로 덴마크 소비자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한편 한국산의 '96년 평균 수출단가는 개당 D.Kr. 13.0으로 중국의 D.Kr. 11.4보다는 높으나 일본(D.Kr. 32)에 비해 매우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고 있어 품질에 비해 제가격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열한 가격경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고급품으로부터 중·저가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이 시장에 진출해 있는 상태로 제품의 수입 가격인하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시장이 고정된 고급품시장을 제외한 중·저가품 시장의 경우 태국, 대만, 중국 등으로부터의 저가제품 공세로 인한 가격경쟁이 치열한 상태이다.

(KOTRA 海外市場 1998. 1. 21)

우리 도로에는 우리나라 타이어